

방직공장터 개발 대우건설도 포기 ‘공공기여금’ 납부 차질 우려↑

주상복합 착공·분양계획 전면 중단
5천900억 공공기여금 지연 불가피
복합쇼핑몰 건립 일정에 영향 없어
시행사 “내년 상반기로 분양 연기”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잇따른 시공사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개발사가 광주시에 납부해야 할 5천9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피에프비이(챔피언스시티)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

우건설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 시공권을 포기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내부 심의에서 단독 시공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까지 손을 떼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주상복합 착공과 분양이 전면 중단됐다.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은 광주 북구 임동 2 9만8천㎡(약 9만평) 부지에 4천315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 부지에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를 건립할 계획으로 주상복합 건설은 챔피언스시티가 맡아 포스코이앤씨·대우건

설과 협력해 추진해왔다. 당초 10월 착공과 동시에 2단지 3천216가구 1차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이탈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 챔피언스시티가 약정한 공공기여금 5천900억원도 당분간 납부 지연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기여금 중 현금 3천여원은 주상복합 착공 후 1개월 이내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 착공이 늦어질 경우 납부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근 도로 개설, 역사공원,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쓰일 현금 2천900여원은 대부분 복합쇼핑몰 준공 시점에 맞춰 이행하도록 설계돼 있어 주상복합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개발 기다리는 방직공장터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주상복합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들이 잇따라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 현장. /김예리 기자

‘코스트코’ 2028년 순천에 문 연다

〈글로벌유통체인〉

전남도·순천시·광양청·코스트코 투자협약
선월지구 1천20억 투자…광주·전남 최초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2028년 순천 선월지구에 글로벌유통체인 코스트코가 문을 연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코스트코코리아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시 선월지구에 신규 입점을 위한 1천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

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코스트코코리아는 2028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선월지구에 연면적 4만6천734㎡ 규모의 대형 매장을 조성한다. 고용 인원은 250여명이다. 광주·전남 최초로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면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순천시, 코스트코와 협의해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지원 강화 대책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농산물·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전통시장 상생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상생협약에 담을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코스트코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코스트코 입점은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전남은 물론, 전북·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알림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공모

광주·전남·전북, 지자체·단체·기업 등 대상…11월14일 마감



종합대상 등 부문별 시상

광주매일신문과 한국관광연구협회가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 등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관광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력에도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귀감이 될만한 관계자와 자치단체 등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광대상 시상은 ▲종합대상 ▲축제 ▲콘텐츠·MICE ▲여행업 ▲숙박업 ▲특별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축제 등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 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매일신문·한국관광연구학회
- ◇주 관 : 광주매일신문
- ◇접수 자격 : 광주·전남·전북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 ◇접수 방법 :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신청서는 화면 상단 관련 파일 다운로드 클릭)
- ◇접수 마감 : 2025년 11월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검찰청 내년 10월2일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이 내년 10월2일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정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뒤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10월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김진수 기자

Today

비의료인 ‘문신시술’ 음지에서 양지로 6면

8월 주택분양 0건…지역건설시장 ‘공공’ 12면

‘남느냐, 떠느냐’ 용병호랑이들 명암 16면

OK! Now Jeonnam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밥맛·생산·품질·동위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2025년 최고의 명품 쌀

www.jnmall.kr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맛있는 전남 쌀을 남도장터에서 구입하세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해남 땅콩쌀	장흥 아라미쌀	영암 달감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나주 왕건이탐년쌀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무안 황토랑쌀	순천 나누리	광진 프리미엄호평	합평 우렁색시미	진도 보배진미쌀